

전문병원이 의료의 질적성장 견인차가 되기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보건과 의료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급격히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국민들의 의료이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민의료비는 89조원으로 GDP의 7.1%이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비는 39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출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나 최근 3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이 약 11%에 이르는 등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보건의료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여기저기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몸과 마음의 성장이 있듯이 종전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도 신체적 성장에 비견되는 공급자 중심, 양적 팽창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니다.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발전이 중요하듯이 의료서비스도 최근 수요자 중심, 의료소비자 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질적 성장을 요구하는 쪽으로 목표나 가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문병원 제도가 논의된 지 10년,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5년여의 기간을 지나 2011년 11월에 전문병원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노

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신규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 주기 및 체계를 개선하며, 비지정기관의 '전문병원' 사용 단속과 인터넷 등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를 강화하여 전문병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제도의 성패 관건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들이 '전문병원' 명칭에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의료공급자 및 수요자의 만족도가 동시에 올라간다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방지하면서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의료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의료서비스 질 관리(quality control) 분야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내리라 기대합니다.

수요자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는 한편, 전문병원 운영자도 의료공급체계의 중요한 축을 전담하게 하며, 국가적으로 보건의료지출이 적정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전문병원이 제공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병원제도가 의료시스템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